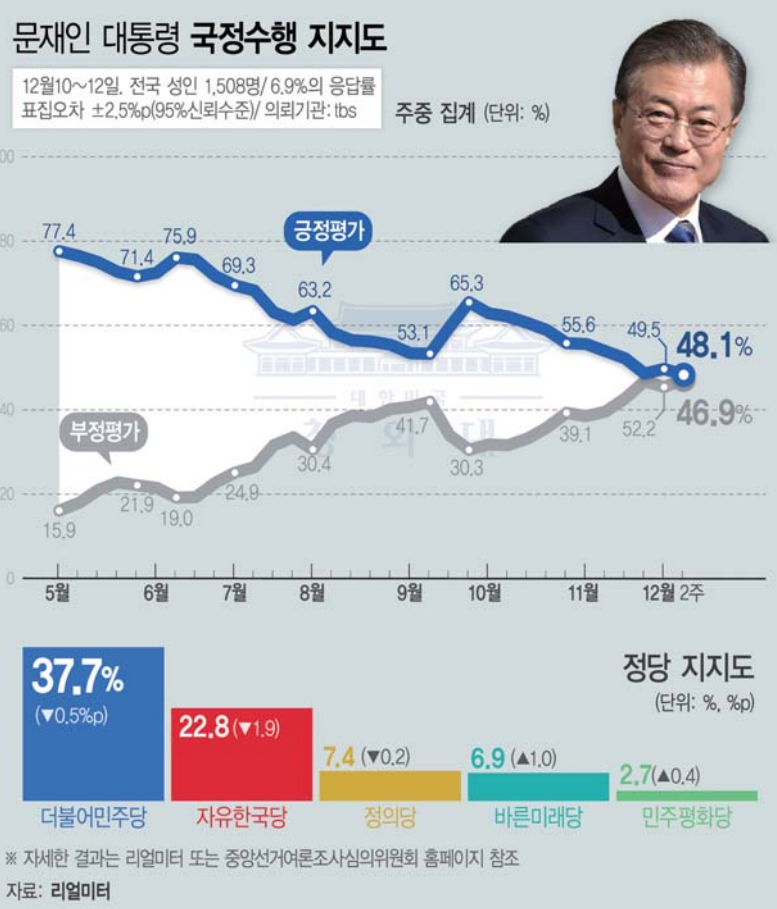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48.1% 역대 최저치

‘강릉KTX 탈선·이재수 전 사령관 투신사망’ 등 사건 사고 요인 민주 37.7%·한국 22.8%·정의 7.4%·바른 6.9%·평화 2.7%順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7.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12월 2주차 주중집계(96%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9%)에 따르면 지난주 대비 1.4%p 내린 전체 응답자의 48.1%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7%p 오른 46.9%(매우 잘못된 28.9%, 잘못하는 편 1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1.2%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강릉KTX 탈선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사망, 택시기사 분신사망,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기소 등 각종 크고 작은 악재가 집중돼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회 피켓시위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야3당, 與연동형비례대표제 입장 발표비판...“주말까지 해결해야”

이정미 “민주당, 매번 핑계대는 정치...이제 좀 사라져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집회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8일째인 13일, 야3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연동형 비례제 기본방향 등의 ▲내년 1월 정개특위 논의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등의 기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주말까지 확고한 답을 가져와 두 당 대표의 단식을 멈추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회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진실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문제는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에선 최종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단식 8일째를 맞아 건강상태와 몸무게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손 대표는 “몸무게가 74~75kg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69.4kg이 됐다. 저는 제가 쓰러져나갈 일치 않는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면도하고 넥타이 메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시간을 끌어안 안 된다. 주말이 가기 전 손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시점까지 못 박았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민주당이란 비판을 피하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주말이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해야 한다. 이해한 대표도 부르고 야당 원내대표도 불러서 설득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부정과 우체이탈, 두 단어가 떠오른다. 어제 민주당 발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그당의 공약인데 무슨 동의를 한다는 건가. 공약이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매번 핑계 대는 정치이 이제 좀 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같이 처리하자고 할 때는 예산안과 연계하는 야당을 누르면서 핑계 대고, 지금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고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며 한국당 핑계를 탤다”며 “그러면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겠나. 국민이 권력을 왜줬다. 어려워도 해결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우윤근 “푸틴, 내년 상반기 방한...김정은 연내 방려 불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대사는 2018 재외공관 회의를 맞아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방한을 예고한 바 있는 푸틴 대통령이 다자회의 일정이 많은 하반기를 피해 상반기에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게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성사) 될 것처럼 지난 9월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라비로프 외교장관도 오랜만에 평

양을 방문했고 마트비엔코 상원의원도 평양을 방문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11월경에도 (김 위원장) 오지 않을까란 분위기가 현지에서도 있었으나 올해는 못할 것 같다”며 “러시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오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내년엔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한 간 서울 방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쌓여있다. 방려는 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있고 북한에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

나”라며 “내년 초에도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방한이 어떻게 될지 북러 간에 정상회담이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돼 반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 전달한 의견이 있느냐는 물음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공관에서 외교부에 상황을 파악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아마 민간업자들에게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거나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명백하게 설명해

줬다”고 강조했다.

남북러 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한 러시아의 투자 구상에 대해 “(러시아가) 남북러 철도사업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지만 투자나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다면 한국과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독자적으로 북한 철도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나진~하산 구간은 이미 러시아 자본이 꽤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중·러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북한이 하는 만큼 제재도 한꺼번에 다 완화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원칙은 늘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목적에 대해서는 “최선희와 와서 북미·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체 밝혀지지 않았다”며 “비공개 내용을 저희가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